

교회 출석 청년 4명 중 1명, ‘요즘 외롭고 우울하다’!

한국 사회에서 청년의 삶은 고달프다. 낮은 청년 취업률은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청년의 삶을 위축시키고 있다. 미디어의 발달은 상대적 빈곤함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의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한 미래 불확실성은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와 자아실현 욕구를 함께 저하시키고 있다.

최근 발표된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의 ‘기독교 청년 인식 조사’는 한국교회의 미래라 할 수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삶과 신앙을 이해하고 한국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번 넘버즈에서는 위 조사결과 중 가나안 청년을 제외한 교회 출석하는 청년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의 고민과 상황을 살펴본다. 주요 조사 결과를 보면 신앙으로 메꿔지지 않은 교회 청년의 불안함을 그대로 엿볼 수 있다. 삶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이 40%에 지나지 않았으며 37%가 요즘 ‘불안’을, 26%가 ‘외로움’과 ‘우울’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불안은 교회 이탈 위험으로 이어지고 있었는데, 절반 이상(56%)은 교회를 떠나고 싶거나 떠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청년의 사회 인식 조사

조사개요

구분	내용
조사 대상	전국 만19세~34세 개신교인 남녀
표본 규모	총 1,000명 (유효 표본) - 교회 출석자 : 760명* - 가나안 성도 : 240명
조사 방법	온라인패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이메일을 통해 URL발송)
표본 추출 방법	지역/성/연령별 개신교인 비례할당
표본 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로 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pm 3.1\%p$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통계 패키지 SPSS 18.0 for Windows로 분석함
조사 기간	2023년 11월 8일 ~ 11월 14일 (7일간)
조사 의뢰 기관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조사 수행 기관	(주)지앤컴리서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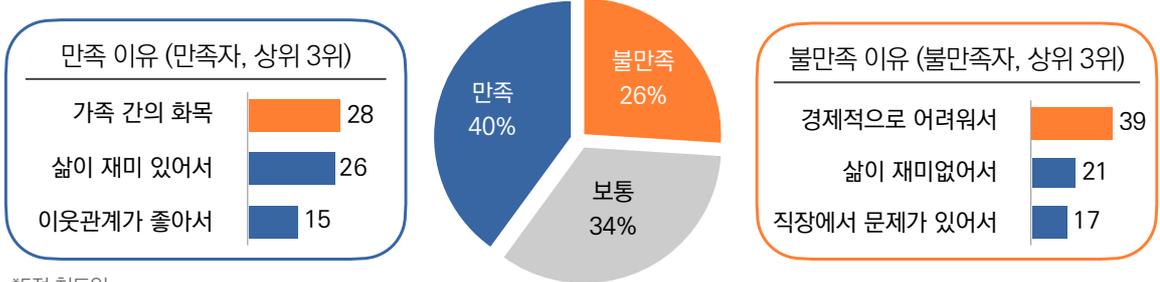
*이번 넘버즈에서는 '교회 출석자' 결과만 다룸

01

[교회 청년의 삶의 만족도] 교회 청년 삶의 만족도 높지 않아!

- ▶ 교회에 출석하는 청년에게 요즘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만족' 40%, '보통' 34%, '불만족' 26%로 기독 청년 5명 중 2명만이 삶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어 전체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낮았다. 이들에게 만족 이유를 물었더니 '가족 간의 화목(28%)'을 가장 높게 꼽았고, 이어 '삶이 재미있어서(26%)', '이웃관계가 좋아서(15%)' 등의 순이었다.
- ▶ 반대로 불만족 응답자들이 꼽은 가장 큰 생활 불만족 이유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39%)'였다.

[그림] 삶의 만족도* 및 이유 (교회 출석 청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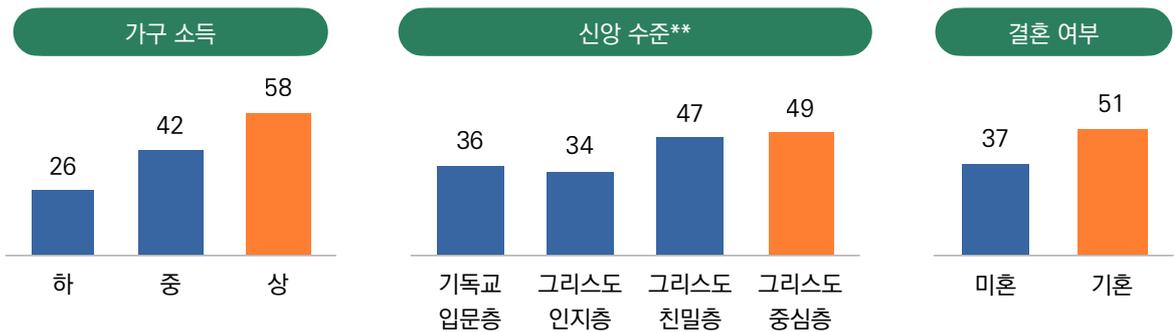


*5점 척도임

◎ 소득 변수가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 미쳐!

- ▶ 삶의 만족도를 인구 특성별로 살펴보면,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신앙 수준이 높을수록, 미혼자보다 기혼자에게서 더 높은 특징을 보였다.
- ▶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가구소득, 신앙단계, 결혼 여부 등 3가지 변수를 독립 변수로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한 결과, 삶의 만족도에 가장 변별력이 높은 변수는 '가구 소득', 즉 경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응답자 특성별 삶의 만족도 (교회 출석 청년, '매우+약간' 만족 비율*, %)



[표] 삶의 만족도 영향 요인

항목	Beta 계수	영향력(%)
가구 소득	0.263	52.7
신앙 단계	0.147	29.5
결혼 여부***	0.089	17.9

*5점 척도임

Note) 신앙 단계에 대한 보기를 주고 선택한 수준임

1단계(기독교 입문층) :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2단계(그리스도 인지층) : 나는 예수님을 믿으며, 그 분을 알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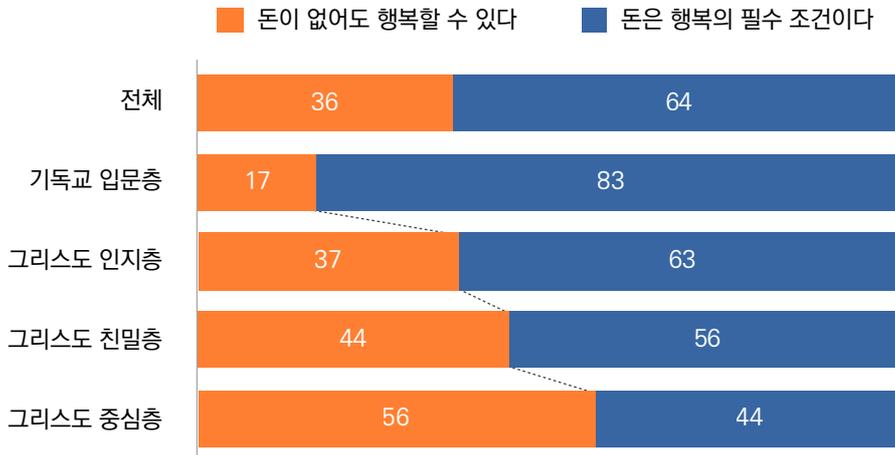
3단계(그리스도 친밀층) : 나는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으며, 매일 그 분의 인도하심에 의지한다.

4단계(그리스도 중심층) : 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이며, 나는 그 분으로 충분하다.

◎ 신앙이 깊은 청년일수록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

- ▶ 이번에는 돈과 행복에 관한 문장을 제시하고 동의율을 물었다. 교회 청년 3명 중 2명(64%)은 ‘돈은 행복의 필수 조건이다’에 그렇다고 응답해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를 밀접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 ▶ 하지만 신앙 수준별로는 인식의 큰 차이가 있었는데, 신앙 수준이 높을수록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에 대한 동의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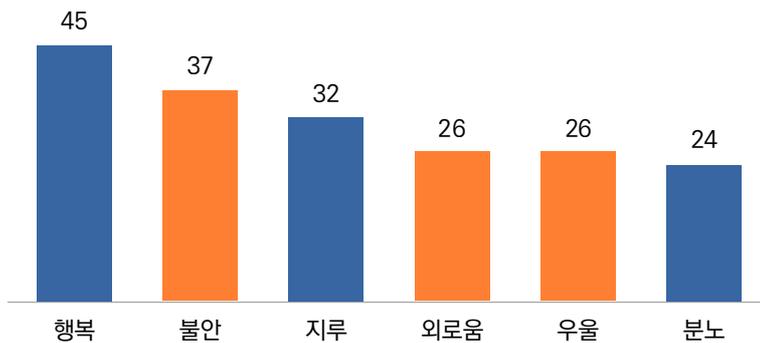
[그림] 돈과 행복에 관한 인식 (교회 출석 청년, %)



◎ 교회 청년, 4명 중 1명, ‘요즘 외롭고 우울하다!’

- ▶ 현재의 삶에서 느낄 수 있는 몇 가지 감정을 제시하고, 각각의 동의율(매우+그런 편)을 확인한 결과, ‘행복’은 45%, ‘불안’은 37%가 응답했으며, ‘외로움’과 ‘우울’이 각각 26%로 나타났다. 즉 교회 청년 3명 중 1명 이상은 불안하고, 4명 중 1명꼴로 외롭거나 우울한 상태인 것이다.

[그림] 요즘 느끼는 감정 (교회 출석 청년, ‘매우+그런 편’ 비율*, %)



*5점 척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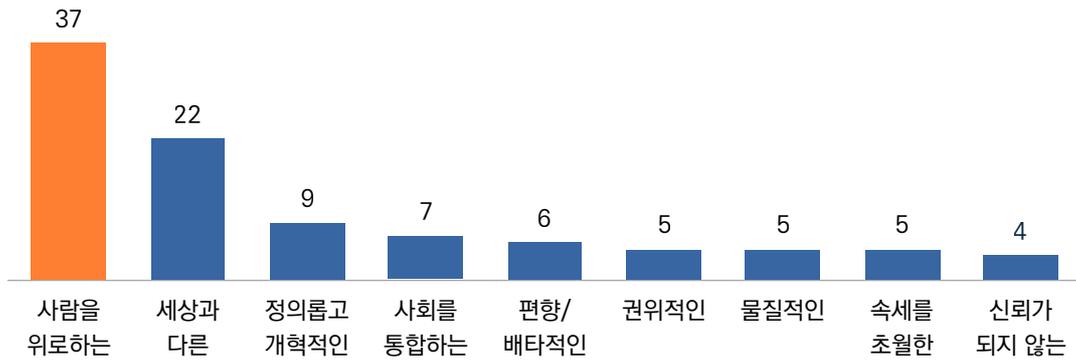
02

[교회 청년의 기독교 인식]

기독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사람을 위로하는’!

- ▶ 교회 출석 청년에게 ‘기독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관해 묻은 결과, ‘사람을 위로하는’ 이미지를 37%로 가장 많이 떠올렸다. 그다음으로 ‘세상과 다른’, ‘정义롭고 개혁적인’, ‘사회를 통합하는’ 등의 순으로 응답됐는데, 전반적으로 부정적 이미지보다 긍정적 이미지를 떠올리는 비율이 더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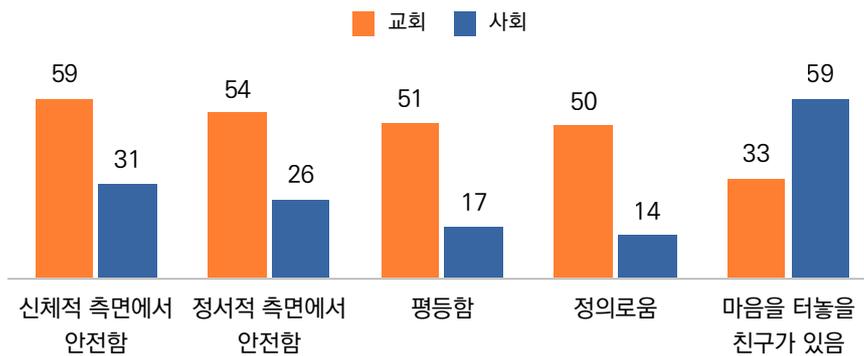
[그림] 기독교 이미지 (교회 출석 청년, %)



◎ 교회가 사회보다 ‘평등’하고, ‘정义롭다’!

- ▶ 교회 및 사회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는 몇 가지 진술문을 제시하고, 교회 청년들의 동의율(매우+그런 편)을 확인한 결과, 교회 공동체의 (신체적/정서적) 안전함, ‘평등함’ 그리고 ‘정义로움’에 대한 동의율이 사회의 안전함, 평등함, 정义로움 대비 훨씬 더 높았다. 사회보다는 교회에 관해 더 큰 신뢰와 안정감을 갖고 있는 것이다.
- ▶ 다만 ‘마음을 터놓을 친구가 있다’에는 사회 59%, 교회 33%의 동의율을 보여 교회 내 깊은 관계에 관해서는 다소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교회, 사회에 대한 인식 차이 (교회 출석 청년, ‘매우+그런 편’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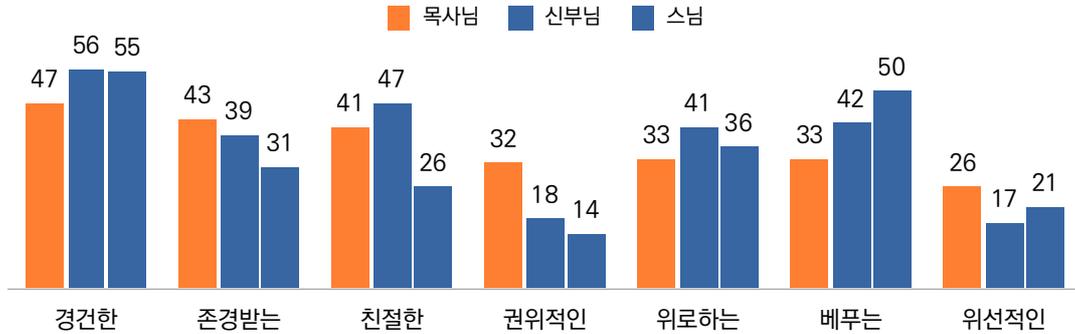


*5점 척도임

◎ 성직자의 ‘위로하는’ 이미지, 목사님이 신부님/스님보다 약해!

- ▶ 이번에는 주요 종교별 성직자의 이미지에 관해 물었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목사님’은 ‘존경받는’ 이미지를 제외하고는 타 종교 지도자 대비 ‘베꾸는’, ‘위로하는’ 등 긍정적 이미지는 낮았고, ‘권위적인’, ‘위선적인’ 등 부정적 이미지가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 ▶ 특히 기독교 이미지로 가장 많이 선정된 ‘위로하는’의 이미지는 타 종교 성직자보다 상대적으로 약했다.

[그림] 종교별 성직자 이미지 (교회 출석 청년, 1+2+3순위, 목사님 기준 상위 7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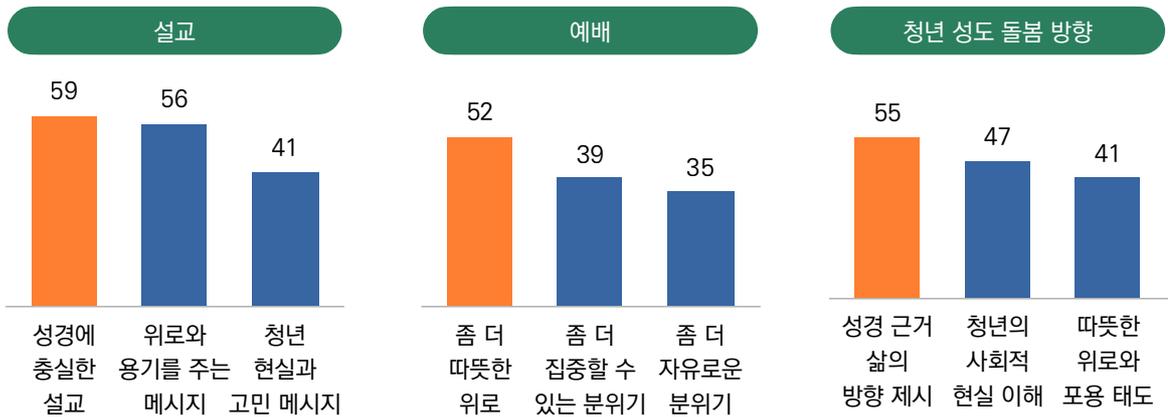


03

[청년이 기대하는 교회] ‘성경에 충실하면서 위로와 용기를 주는 설교’ 원해!

- ▶ 출석하는 교회의 ‘설교’, ‘예배’, ‘돌봄 방향’ 측면에서 바라는 점을 살펴본 결과, 교회 청년들은 ‘성경에 충실하면서 위로와 용기를 주는 설교’, ‘좀 더 따뜻한 위로가 있는 예배’, ‘성경에 근거한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돌봄’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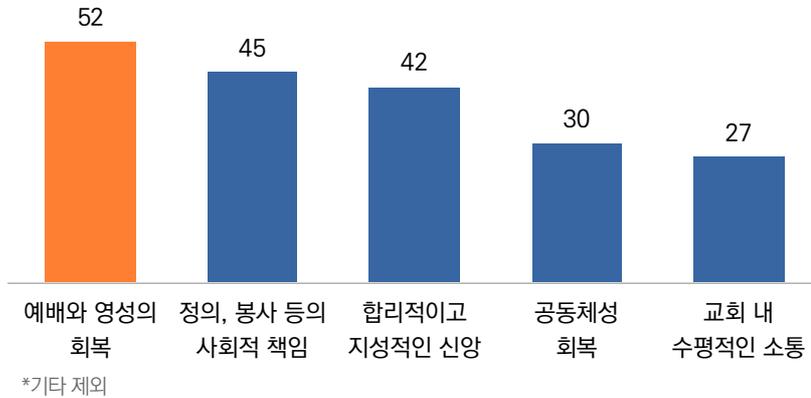
[그림] 출석교회에 바라는 점 (교회 출석 청년, 1+2+3순위, 상위 3위, %)



◎ 교회 청년이 가장 많이 꼽은 한국교회 개선 사항, ‘예배와 영성 회복’!

- ▶ 한국교회가 개선해야 할 점에 관해서는 ‘예배와 영성의 회복’이 52%로 가장 많이 응답됐고, 이어 ‘정의, 봉사 등의 사회적 책임’(45%)과 ‘합리적이고 지성적인 신앙’(42%)이 높게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예배와 영성을 회복해야 하며, 지성적 신앙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교회 청년의 생각이다.

[그림] 한국교회 개선 사항* (교회 출석 청년, 1+2순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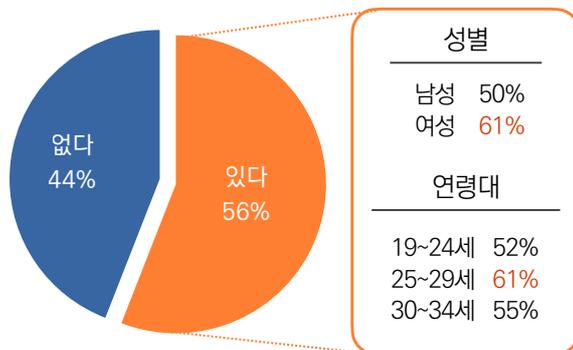
04

[청년의 교회 이탈]

교회 청년 56%, 교회 떠나고 싶었거나 떠난 적 있어!

- ▶ 교회 청년들에게 교회를 떠나고 싶었거나 떠난 경험이 있었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절반 이상인 56%가 ‘있다’고 응답했는데 ‘여성’과 대학 졸업 직후(취업 준비) 혹은 제대 이후 시점인 ‘25~29세’에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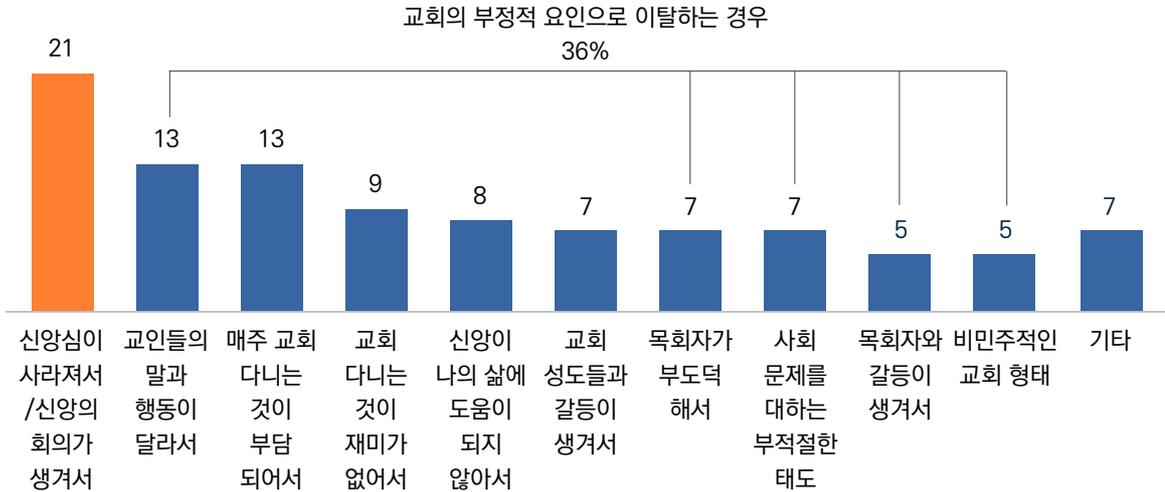
[그림] 교회를 떠나고 싶었거나 떠났던 경험 (교회 출석 청년)



◎ 교회 이탈 청년의 이탈 이유, 교회 부정적 요인 36%

- ▶ 교회를 떠나고 싶었거나 떠난 경험이 있는 자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신앙심이 사라져서/신앙의 회의'란 이유를 21%로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교인들의 말과 행동이 달라서', '매주 교회에 다니는 것이 부담돼서'란 응답도 각각 13%였다. '교인들의 말과 행동이 달라서', '목회자가 부도덕해서' 등 교회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이탈하는 경우는 총 36%에 해당했다.

[그림] 교회를 떠나고 싶었거나 떠났던 이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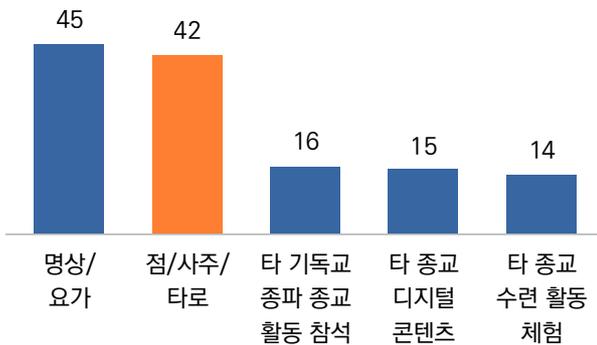
05

[기타]

교회 청년 10명 중 4명 이상, '점·사주' 봤다!

- ▶ 교회 청년들의 타 종교/콘텐츠 경험률은 어느 정도일까? 명상/요가, 점/사주/타로 등 타 종교/샤머니즘 관련 활동/콘텐츠를 제시하고, 각각의 경험 여부를 살펴본 결과, '명상/요가(45%)', '점/사주/타로(42%)'의 경험률이 10명 중 4명 이상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타 기독교 종파 종교 활동 참석' 16%, '타 종교 디지털 콘텐츠' 15%, '타 종교 수련 활동 체험' 14% 등의 순이었다.

[그림] 타 종교/콘텐츠 경험 여부 (교회 출석 청년, %)



한국 사회 청년의 상황은 빈곤하고 불안하다. 서울 청년 절반 이상(56%)이 빈곤하며, 3명 중 1명 이상(35%)은 우울 증상이 의심되는 상태이다.¹⁾ 장기간의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경제는 더 경색되고 각자도생의 경쟁사회에서 청년의 삶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탈종교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한국의 무종교인 청년 비율은 어느 세대보다 급증하고 있다.

최근 목회데이터연구소가 조사한 '국민 종교 분포 및 현황'에 따르면 2023년 전체 국민의 종교인 비율은 37%인데 20대와 30대의 종교인 비율은 이보다 한참 낮은 16%와 19%로 전체 국민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²⁾ 20대와 30대의 개신교인의 비율은 각각 9%와 11%이며, 개신교인의 교회 출석 비율이 각각 71%, 67%이니,³⁾ 청년 100명 중 교회에 출석하는 청년은 7명 정도인 셈이다. 코로나 이전 조사한 기독교 청년 조사에서는 10년 후 신앙생활을 예상하는 질문에 교회 출석 청년의 36%가 '교회를 나가지 않을 것' 또는 '신앙을 버릴 것'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도 있었다.⁴⁾

이번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의 '기독교 청년 인식조사'는 이러한 청년세대의 위기와 교회 이탈을 위중한 문제라고 여겨 이들의 가치관과 신앙관을 살펴보는 한편 교회를 향한 청년들의 기대와 필요는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가장 눈에 띄는 결과는 먼저 '교회 청년의 불안함'이다. 요즘 삶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이 40%에 지나지 않았으며, 요즘 느끼는 감정으로 '불안'하다는 비율은 37%로 나타났다. 특히 '불안'하다는 비율은 신앙 수준과 경제적 수준에 반비례했는데 신앙 수준이 낮거나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불안의 정도는 높았다. 이러한 청년의 불안한 감정은 신앙 외적인 요소에서 평안을 추구하고 미래를 의지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무려 40% 이상의 교회 청년들이 '명상/요가'(45%), '점/사주/타로'(42%)를 경험했고, 더 놀라운 것은 경험자의 80%가 신앙에 도움되었다고 응답한 점이다.

한편으로 교회 청년들은 안전함, 평등함, 정의로움 등과 같은 사회 보편적인 가치에 관해서 사회보다 교회에 더 큰 신뢰가 있었다. '정서적 안전함(54%)'에 관해서는 사회보다 2배 이상, '평등함'과 '정의로움'에 관해

서는 사회보다 3배 이상 교회를 더 높게 평가했는데, 이는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좀 더 안정과 위로를 찾으려는 청년의 불안한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사회와 현실에서 지친 청년들이 교회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으려는 결과는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기독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로 다른 응답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꼽힌 것이 '사람을 위로하는(37%)'이었으며, 신앙생활의 이유로 '구원(26%)' 못지않게 '마음의 평안(24%)'이 높은 선택을 받았다. 출석 교회 설교에 바라는 점으로 '성경에 충실한 설교(59%)' 다음으로 '위로와 용기를 주는 메시지(56%)'가 꼽혔고, 예배에 바라는 점 1위는 '좀 더 따뜻한 위로'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독교 청년의 감정은 불안한 현실을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신앙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유롭지 못했는데, 이러한 기독교 청년의 삶과 신앙 간 상관관계를 '돈과 행복에 관한 인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돈은 행복의 필수 조건이다'라는 가치 진술문에 무려 교회 청년의 64%가 동의했는데 신앙 수준이 가장 높은 그룹의 경우 오히려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에 56%로 더 높은 동의를 보였다. 신앙의 힘으로 돈의 영향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데이터이다.

앞서 교회 출석 청년이 100명 중 7명에 불과하다고 했지만, 그래도 희망적인 부분은 종교를 가진 청년 중 개신교인의 비율이 절반이 넘는다는 점이다. 이들이 한국 교회 개선 사항으로 예배, 영성의 회복과 사회적 책임을 언급한 것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교회는 먼저 기독교 청년들의 불안한 실존적 삶에 영적인 해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삶과 신앙은 분리된 것이 아님을 다시금 주지시켜야 한다. 그다음으로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힘을 내야 한다. 교회 내부적으로 청년에 대한 돌봄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바람대로 사회적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1) 한국일보, '서울 청년 절반은 '빈곤'...3분의 1은 '우울 증상', 2023.12.07.

2) 목회데이터연구소, '2023년 국민 종교분포 및 종교현황', 2024.01.16. (전국 만 19세 이상 4,745명, 전화조사, 2023.10.18.~11.01.)

3) 한목협, <한국기독교분서리포트,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조사 보고서>

4) 넘버즈 84호, '기독교 청년 신앙 의식'